

속 편한 세상을 위한 소화기 정밀검진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격무,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대기환경의 오염 등으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미리미리 건강상태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화기계통 질환은 현대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로, 이에 대한 정밀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설명]

소화기 정밀검진은 소화기계통의 질환이 의심되거나 소화기계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권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위내시경, 직장경, 대장내시경 검사와 필요시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상복부초음파, 혈액검사/종양성표식자, 대변 검사 등도 검사내용에 포함된다.

| 주요검사항목 |

위내시경검사(Gastroscopy) : 식도, 위, 십이지장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며, 병변이 있을 시 조직검사를 하여 확인한다.

대장내시경검사(Colonoscopy) : 직경 1.2cm정도의 가는 관 끝에 렌즈가 달린 굴곡성 전자내시경으로 대장의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하여 암, 염증, 용종 등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검사 중 대장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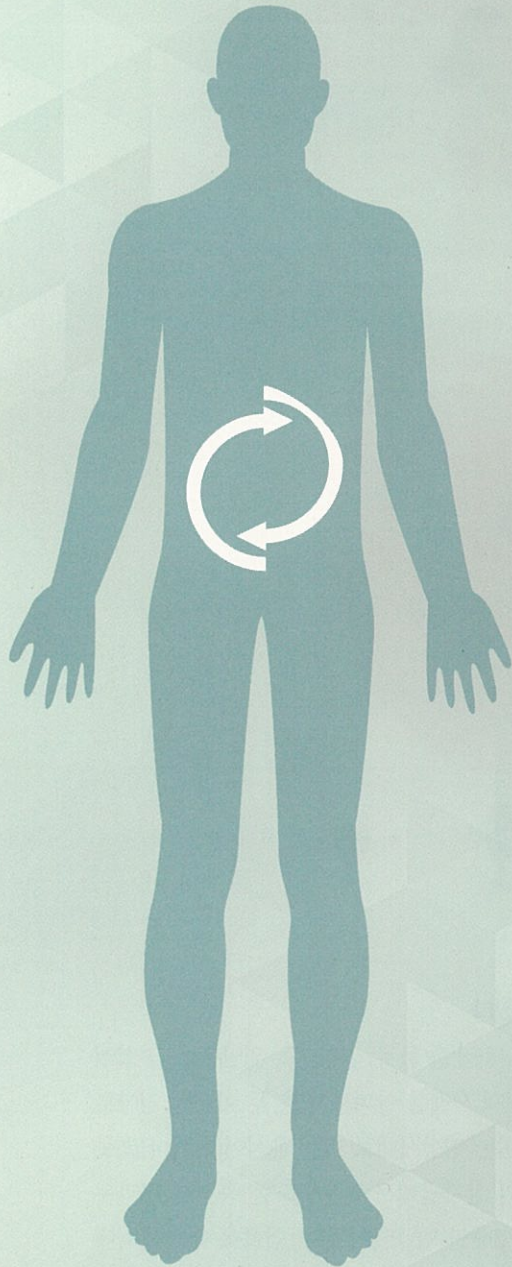
복부초음파검사(Abdomen Ultrasonography) : 간, 췌장, 담낭, 신장, 비장, 골반강 등의 복부 장기들을 검사하며, 인체에 피해가 적고 장시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권장 검진주기 |

2년마다. 단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이 있으면 1년마다 받을 것을 권장한다.

| 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내시경검사이든 진경·진정제를 투여한 후 시행함으로 검사 후 즉시 운전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검사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이상 소견(통증이 심하거나 토혈, 하혈, 또는 흑색변을 볼 경우)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또는 내시경실)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기 건강검진 시 우려 질병 (중복응답)

- ◆ 소화기 관련(위, 식도, 소장 등) : 74.5%
- ◆ 순환기 관련(심장, 고혈압 등) : 61.8%
- ◆ 내분비 관련(당뇨, 골다공증 등) : 47.3%
- ◆ 외과 관련(유방, 갑상선 등) : 44.3%

출처 : 「2012대한민국소비자생각읽기」 中

